

The Future IV.

마지막 때 성도들의 시간개념

1. 노아의 시대 - 시간의 의미는?

[마태복음 24:37]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마태복음 24:38-39]

38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39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 말씀하셨다. 노아의 때를 직접 설명하셨다(38~39절). 노아의 때는 다가올 심판의 시간에 대하여 무더져 있는 때이다. **(39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도 깨닫지 못하는 시대)**

왜 무더져 있는가? 38절이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기 때문이라 말한다. 먹고 마시고 결혼하는 것이 나쁜 것인가? 아니다.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의 시간에 무더져 있다고 말한다. 자신의 시간을 사느라 정신없다. 자신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시간은 없다. 하나님의 시간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없는 삶이 오래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깨어 있으라' 말씀하셨다.

2. 제자의 삶

[누가복음 9:59-62]

59 또 예수께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60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라."

61 또 다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62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아버지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간청했다. 다른 사람은 집안 식구에게 작별 인사를 허락해 달라고 간청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요청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아버지 장례를 치르는 일,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일이 나쁜 일은 아니다. 마땅한 요청이다. 이에 대한 많은 해석이 있으나, 집중하고 싶은 부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자신의 시간을 사는 것이 아니다. 제자는 스승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내 뜻이 아니라, 내 그물을 먼저 버려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오늘날 제자는 누구일까? 신학교 가고 사역의 길을 가는 사람이 제자인가? 아니다. 성경에서 정의하는 제자는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이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뜻을 '우선'으로 따르는 사람들이다. 제자는 바로 '우선순위'가 정렬된 사람들이다 (내 일을 돌보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내 뜻 보다 주님의 뜻이 '우선'으로 정렬된 사람들이다.

3. 노아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시간이란?

그렇다면 노아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시간이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두며 살아가는 삶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말한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간을 따라 살아갔다.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살아갔다. 노아의 시대에 핵심은 '방주'이다. 방주는 무엇인가? 다가올 심판의 때 영혼을 구원하는 배이다. 방주는 구원을 상징한다. 노아의 때라는 것은 '마지막 때'를 말한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주어진 시간을 말한다. 그에 대한 이해가 창세기 6:3절이다.

[창세기 6:3]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백이십 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떠나 육신이 되어버린 사람의 수명이 나온다. '백이십 년'이다. 사람들은 흔히 노아의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아마 위의 말씀 때문에 그런 것 같다. 그러나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는 근거는 없다.

* 120년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다.

- (1) 죄로 인한 인간의 수명이 단축되었다고 보는 견해
- (2) 회개를 기다리는 심판 유예기간으로 보는 견해

“하나님은 은혜의 마지막 기간을 인류의 회개를 위해 정하셨다... 죄악을 보용하시기 전 하나님은 적지 않은 120년이라는 기간을 인류의 회개 기회로 제공해 주셨다.... 따라서 "날들"이 하나님께서 장래의 인간 수명은 120년을 넘지 못하리라 작정하신 것을 뜻하지 않는다.” H.C. Leupold.”

루터는(칼빈, Scofield Bible도 역시) 120년이 홍수를 보내기 전에 하나님에 의해서 인간에게 허용된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내가 아직 120년의 유예 기간을 그들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Luther Bible).”

이것은, 그때에 사람의 수명이 120년으로 한정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120년 지난 후에는 홍수 심판이 있으리라는 의미이다, 「120년 동안이나 회개할 기회를 주셨으되 그들이 순종치 않았으니...」 박윤선

위의 두 견해 모두 어떤 것이 옳다 말할 수 없다. 120년이 주는 중요한 의미는 노아가 단순히 방주를 짓는데 쓴 시간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4. 주어진 시간

노아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시간’의 의미는 이제 너무나 명확하다. 이 시간은 영혼 구원의 시간이다. 마지막 심판 주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에게 유보되고 확보된 시간이다. 다른 시간이 아니라 ‘영혼’에 대한 시간이다. 가장 긴박하고 중요한 시간이다. 이제 ‘시간’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하자. ‘내 시간’이 아니다. ‘방주’를 짓고 ‘영혼 구원’을 해야 할 노아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이 분명하다.

5. 긴박한 시간, 7일

[창세기 7:4]

지금부터 칠 일이면 내가 사십 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방주를 짓고 7일이 확보되었다. 홍수가 터지기 직전의 긴박한 시간이다. 이미 방주가 다 만들어졌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마지막 7일이 더 확보되어 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다. 120년, 7일이라는 기간 안에 숨겨진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아야 한다. 영혼의 문제가 뒤로 가면 안 된다. 모든 것의 우선이 되어야 한다. 명심하라. 영혼에 대한 문제가 다른 어떤 문제보다 우선이다.

6. 우선으로 반응해야 하는 영혼의 문제

긴박함의 문제이다. 가장 우선으로 신경 써야 한다. 영혼 구원을 위한 필요에 바로 반응해야 한다. 머물렀다 하지 마라. 바로 반응하고, 바로 움직여야 한다. ‘성도들의 시간 관리는 한 마디로 영혼을 우선으로 여기는 삶’을 말한다. 내 생각이 아니다. 오늘 그에게 확보된 마지막 시간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라. 영혼에 대한 문제는 양보의 문제가 아니다. 우선으로 움직여야 한다.

7. 시간 전쟁

이 시대 우리는 영혼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모든 물질문화를 깨야 한다. 물질문화에 함몰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확보해 주신 시간을 물질문화 속에 낭비했다.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면 (방주를 만드는 노아처럼) 하나님은 나머지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주신다’ 시간 전쟁에서 승리하라. 생명은 가장 소중한 것이다. 소중히 여기라. 7일의 확보된 시간이 우리에게 허락된 마지막 시간임을 기억하라.

8. 구원 보트! 조이풀! – SRB (Spiritual Rescue Boat)

SRB는 작은 구조보트를 말한다. 성도와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다. 영혼을 돌보고, 어려운 자들을 돌보는 일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음을 기억하라. 코이노니아는 단순한 교제 그룹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함께 하고, 어려운 자들을 돌보는 작은 구조보트와 같은 것이다. 이제 교회는 SRB로 다시 개편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보해 주신 이 시간을 영혼을 구원하는 시간으로 풍성하게 하자.